

영적원리 X XIV.

고난은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1.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과 공간이다. 결국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

-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vs 사람 앞에서 설 것인가?
- 내 힘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것인가? vs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 볼 것인가?

2.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과 힘으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과 생각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한다. 막힘의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를 옥죄기 시작한다. 움직일수록 모든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된다.

*** 요나의 경우** - 요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다. 욥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할수록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요나를 옥죄어 오기 시작한다. 결국 욥이 두 손 들때까지 욥을 향한 고난은 멈추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 차원에 대한 이해** - 내 능력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느끼는 이유는 내 시각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키를 넘어버린 환경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아야 한다.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믿음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3.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다.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갈 수 있다. 예수님도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나아가실 때에 광야로 가서 스스로 연단 받으셨다. 이 원리가 중요하다. 고난은 결국 나를 '혼자' 있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다.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준비시키는 공간이다. 어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 내가 경험해야 한다. 고난의 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고, 이해하고, 상황을 다스리고,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가장 힘든 감정은 외로움이다.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은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떤 누구도 대신 예수님의 시험을 대신하지 않았다. 예수님 스스로 금식부터 사탄의 시험까지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이다.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셨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과 외로움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기에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알게되며 (겸손을 배움) 바로 그 겸손의 공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모든 의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영성은 깊어진다. 이것은 추상적인 영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성이 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직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절대성에 나의 연약함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율법적이고 인위적인 비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에 압도 되었을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에 압도될 때, 내 힘의 모든 것이 거부되는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것이 자기 힘에 근거하여 자기를 비워내는 종교와 다른 점이다.

4.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가? 명심하라. 읊, 요나가 하나님의 안전한 주권의 공간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요나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난 뒤에 성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경험하는 실제이다.

5. 고난의 순간에 멈추어서 붙잡아야 할 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절대신뢰를 배우게 된다. '사랑과 정의'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의'이다. 정의는 무엇인가? 사탄, 악인은 반드시 패하고 의인은 이긴다는 것이다. 권선징악이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이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16에 말씀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다. 반드시 이기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인내는 반드시 승리로 주어진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이기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셨다.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셨다.

[요한계시록 14:12]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1-4]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4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고난 가운데 붙잡으라.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 내 차원보다 더 부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입을 크게 벌려 기대하라.

6. 연습 - 진짜 승리를 경험하라.

반복되는 시험을 이제는 이겨야 한다. 스스로 승리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승리이다. 죄성에 물들어서 한 번도 다루어 보지 않은 연약한 자아를 다루어야 한다.